

# 오피니언

## 월/요/광/장

이건철



금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달리 걱정이 크다.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연구자의 입장이지만, 국정을 책임질 제18대 대통령이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함께 걱정이 앞선다.

결론적으로 18대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한 역할을 갖추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식량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의 경제적 주도권 다툼에 현명하게 대응할 역량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5년 단임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정철학과 역량을 미리 갖춘 이른바 '준비된'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기원한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임기응변적으로 정책노선을 설정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대통령화 분야에서 세계적 전문가로 평가받는 폴 라이트 뉴욕대 교수는 저서인 '대통령화'에서 "신임 대통령은 천금같은 시간인 임기 초에 바로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며 당선 이전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제18대 대통령의 조건

국내적으로 대통령이 이루어야 할 국민통합은 지역·계층·기업간 격차가 모두 해소될 때 완성되는 것이 양의 동서를 막론한 진리이다. 지역간 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면서 3루 살기 좋은 국토가 조성될 때 해소된다. 그래서 비수도권과 농촌의 실상을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계층간 격차는 일자리 창출, 세계개혁 등을 통해 '부의 쏠림' 및 '부의 세습' 현상을 억제하고, 기업간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 해소된다. 현 정권에서 이념논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과 균형을 중시한 지방경영 경험자가 적임자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 지구촌의 최대 화두는 글

로벌 식량위기이다. 세계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 식량수요가 증가하는데 반해, 기상이변에 따라 수확량이 감소하고, 대체 에너지 생산과 중국, 인도 등의 육류·어류 소비량 증가에 따라 추가 곡물수요가 늘어나 식량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식량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농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식량위기에 둔감한 편이다. 식량자급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26%대에 머물고 있고, 특히 콩(8.4%), 옥수수(1.0%), 밀(0.5%) 등 주요 곡물 소비량의 95%에 해당하는 1,400만 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도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유엔연습을 통해 '부의 쏠림' 및 '부의 세습' 현상을 억제하고, 기업간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 해소된다. 현 정권에서 이념논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과 균형을 중시한 지방경영 경험자가 적임자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 지구촌의 최대 화두는 글

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동북아에는 한·중 FTA를 시작으로 미국을 배제한 한·중·일 경제협력기구 구축과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중대사이다. 최근 한·미 FTA가 발효되고, TPP에 일본이 가세하면서 동북아의 경제적 세력 균형이 미국 쪽으로 옮겨가 있는 만큼 중국도 한국, 일본 등과의 FTA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로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의 국가전략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더욱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특수상황을 감안하면 미국과 중국을 잘 알고, 소통이 가능한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역량 있고, 준비된 대통령이 되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제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내에서 모든 지역·계층에서 '국부'로 추앙을 받고, 세계적으로도 지도력을 인정받는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기원한다.

〈전남발전연구원 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법조칼럼



박민섭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고 있는 박성실(가명)씨는 종종 외상거래에서 물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나 거래처 부도도 결국 빚만 지고 사업을 폐업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가정불화와 우울증으로 그의 아내의 스스로 생을 마쳤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빚빚치면서 박씨도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이 눈에 밝혀 그럴 수도 없었다. 그는 때때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기초생활수급비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 여전히 그에게는 6000여만 원의 빚이 남아 있으며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된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양극화가 급속하게

## 성실한 채무자라면 새 출발 가능하다

진행됐다. 그 와중에 많은 사람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지급 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근로의욕 저하, 가정파탄, 범죄, 금융기관의 부실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 과다한 채무와 사채업자의 극심한 채권 추심으로 채무자나 그 가족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채무자들의 신산한 삶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비단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은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박씨는 인정에 끌려 가지 못한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했을 것이며, 이렇게 시작된 빚은 카드 돌려막기와 고리 사채를 거쳐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는 부실한 신용조사와 과잉용자의 희생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는 지급불능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채무자를 갱생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파산법을 폐지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개인채무자에 관해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그리고 일반회생절차를 두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 최대 5억 원의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그러한 여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생계비 이상의 최저 생계비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게 한 뒤 면책시키는 제도이다. 일반회생절차는 채무 한도가 없는 점에서 개인회생절차와 차이가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다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채무자가 지급불능인 경우 이를 조기에 결정해 일부라도 면제받을 수 있다면 채권자에게도 바람직할 수 있다. 부실채권을 빨리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별첨한 채무자가 허위로 지급 불능임을 내세워 면책받는다면 채권자로서는 정당한 면제를 받을 수 없어 억울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그 자신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바로 이 점이 도덕적 해이에 빠진 채무자의 파산이나 회생신청을 엄격히 막아야 하는 이유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일부터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판사가 직접 자

격 없는 채무자를 걸러냈지만, 이 과정에서 업무 과중으로 절차가 많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그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등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등 면책. 다만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보수로 지급될 비용으로 최대 30만 원을 예납해야하는데(과거에는 파산관재인 보수로 150만 원 이상을 예납해야 했다), 이마저도 예납할 형편이 안 되는 채무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관재와 같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진행하게 된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는 접수 후 한 달 이내에, 면책은 그로부터 두 달 이내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법원은 예상하고 있다.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박씨는 법원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성실한 채무자라고 인정되는 한 청산 혹은 일부 또는 전액면제 후 면책을 받아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재산은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절차에 불성실했다면 원칙적으로 구제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법원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만을 구제하기 때문이다.

〈광주지방법원 판사46단독 판사〉

## 기고



이경훈

며칠 전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승촌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정오 무렵 찾은 승촌보는 바람이 많이 불고 비교적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으로 북적거렸다. 나로서는 다소 의외였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높을가 보다.

'승촌보 문화관'의 전망 데크에 오르니 탁 트인 전경이 가슴을 시원하게 했다. 왼쪽으로 멀리 광주시의 상징 무등산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영암 월출산이 보인다는데 오늘 은 월출산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설명을 하는 직원 이야기를 들으니, 이곳 승촌보가 4대강 사업 16개 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

## 영산회고(榮山回顧)

조물이라고 한다. 나주평야에서 나는 쌀알 모양을 형상화한 보는 윗부분 티타늄이고 밑에서 보면 한 개의 구조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여러 개의 판을 접합한 것이라고 했다.

이곳 승촌보는 '영산강의 8경' 중 제6경이라고 했다. 가만히 바라보니 산과 물의 아름다움이 쉽게 찾아보기 힘든 장관임에 틀림없다. 외국의 유명 예술가의 작품이 선보이게 될 '승촌보 문화관'은 조만간 개관 예정이라고 한다. 문화관 뒤편으로 발길을 옮기니 공인시설과 멀리 축구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면적만 10만 평이나 되는 이곳에는 일부 생태습지와 공연시설, 오토캠핑장, 농구장,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시설이 보이고, 길이가 인상적인 미끄럼틀에는 아이들이 줄을 늘어서 있다.

어린 시절 내 기억 속의 영산강은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다. 영산강의 포구에는 어선들이 드나들고, 선창에는 생선들의 푸드덕

거림과 생선을 옮기는 어부와 상인들의 생동감이 넘치는 곳이었다. 그와 더불어 이 지역 주민들은 물난리라는 자연재해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야만 했다.

그랬던 영산강이 언제부터인지 그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강물의 유량이 줄고, 상류에 있는 광주시 하수 증가로 영산강 수질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해수에 의한 염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영산강 하구언 사업은 흉수 시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나주시 일대의 물난리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에 대한 많은 속에서도 이 지역의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여론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다. 너무도 절실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승촌보, 죽산보 건설을 비롯해서 홍수조절지, 하구둑 배수갑문 증설 등 총 2조800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며, 이제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애초 정부에서 설명한

사업효과에 대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최소한 우리 지역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평가는 예전보다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강이 강다워졌다. 토사 준설로 인해 강의 폭과 깊이가 이전보다 많이 확대돼 목표에서 승촌보까지 배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 매우 반가운 일이다. 조만간 개통식을 갖는다는 '영산강 자전거 길'은 길 이만 해도 220km로 사회체육 기반이 취약한 우리 지역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승촌보 문화관'도 개관하면 이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정겨웠지만 재산을 안고 살아가던 강에서 이제는 승촌보와 죽산보라는 명소와 전에 비해 훨씬 넓어지고 유량도 풍부해진 강으로 변한 모습이 영산강, 삼전별관만 말이 딱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다. 더불어 '승촌보 문화관'이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롭게 태어난 영산강의 모습과, 새로운 문화공간의 체험, 공연과 체육시설을 동시에 즐길 수 있고, 자리나는 다음 세대가 새로운 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교육의 현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전남대학교 토목공학교수〉

## 환기 안되고 세균 득시글한 PC방 위생관리 더 철저해야

PC방은 청소년들이 학교 외에 가장 많이 가는 곳이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위생관리가 그 어느 곳보다 철저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PC방 어떤 가봐도 항상 어두컴컴하고 환기가 안 되며 지저분하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의 실내 조명이 보통 1000룩스가 기본이라는데 PC방은 100룩스도 안 된

다고 한다. 당연히 시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PC방 안에서 영업을 위해 커피를 끓여서 제공하고 어묵 같은 음식을 끓여서 주다 보니 각종 음식냄새가 환기가 안 된 채 범벅이 돼서 건강에 아주 안 좋다.

그뿐 아니라, PC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보자. 게임을 하면서

커피면을 먹다가 국물을 흘리기도 하고 파자 부스러기와 먼지까지 뒤통백된 마우스와 자판은 그야말로 세균 덩어리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 PC방의 자판과 마우스의 세균 수치는 바스라미벌 공공 화장실 화장기보다도 높다고 할 정도이다.

일반 세균수가 대형 마트의 카트 손잡이보다 1만 배나 많고, 심지어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도 적잖다고 한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분리돼 있지 않지만 그걸 형식상의 구분인지 완전히 분리돼 있

지 않아 흡연구역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그대로 들어와 금연구역은 있으나마나이다. 특히 한겨울과 한여름에는 방난방을 위해 문을 꼭꼭 닫고 영업을 하는 허다 보니 환기가 제대로 안 돼 공기의 질은 최악이다.

PC방처럼 밀폐된 장소에서는 담배연기의 독성이 희석되지 않아 오히려 일반적인 간접 흡연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고 한다. 당국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위생을 위해 PC방에 대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주길 바란다.

▲김진송·광주시 서구 화정동

## 시설

## 여수박람회 개막 관람객 유치 과제로 부상

여수박람회 개막 첫날인 12일 관람객이 예상 보다 적어 관람객 유치가 당장 속세 떠올랐다. 그러나 예행연습 당시 드러났던 관람객 운송, 예약 시스템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성공 운영을 예감케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수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개막 첫날 예상 관람객을 5만 명으로 기대했으나 3만6000 명에 그쳤다. 조직위는 관람객들이 관람계획을 세우는데 다소간 시일이 필요, 개막 첫날을 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역대 박람회의 개장 첫주말 관람객 추이가 평소 관람객의 60% 수준인데 여수박람회는 이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보 등을 통한 관람객 유치가 박람회 성공을 위한 제1의 관건이 된 셈이다. 조직위는 수도권 학생 등이 방학·휴가철을 이용해 관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고 방학·휴가 시즌이 되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

다.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다 한들 궁극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유치 전략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운영은 비교적 순조로웠다는 평가다. 3차례 예행연습 과정에서 지직된 환승주차장 장시간 대기, 사전예약 시스템 마비 등의 문제점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식품시설에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몰리면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분수대가 지체참가로 작동되지 않는 등 크지는 않지만 일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나이지리아와 멕시코관이 첫날 문을 열지 못하는 등 유예 티도 있었다. 이밖에 장애인·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여수박람회는 8월12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열리고 국내외 관람객이 몰려드는 점을 감안, 개장 초 드러난 작은 흠이라도 개선해야 한다. 그레아만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격을 높이고 세계 제일의 해양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 승려들이 역대의 도박판을 벌였다니

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들이 역대의 포커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술을 먹고 약배까지 피웠다고 한다. 도박에 가담한 승려 가운데는 유명 사찰에서 주지를 맡았던 스님도 포함돼 있다.

승려 8명은 지난달 23일 장성군 북하면 도 관광호텔에서 술과 담배를 함께 하며 수억 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도박 장면은 종단 내부 갈등 과정에서 상대편이 '필거'를 설치해 촬영한 동영상은 폭로함으로써 드러났다.

불교계는 도박 파문이 불거지자 충격에 휩싸였다. 종단 집행부 간부들은 지난 10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또 대국민 사과문과 사태해결 방안도 발표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관련자를 중벌에 따라 엄벌하라고 긴급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원 간부들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과 중

도들에게 죄송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엄격한 수행정진을 통해 자기관리와 사회 계도 역할을 해야 할 승려들이 법밖인 도박판을 벌였으니 역장이 무너지는 일일 것이다.

승려들이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지는 건 돈을 만지는 재정을 담당하는 게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 돈을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욕이 생긴다는 것이다. 불교 관계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권력과 자본을 둘 다 가지지 못하게 하듯 스님이 권력과 자본을 동시에 누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불교계의 모든 운영은 사찰 입장료 수입과 신도들의 헌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투명한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따라서 스님이 아닌 신도에게 재정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종단은 이번 기회에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빠른 철회를 통해 거듭나야 한다. '무소유'를 몸소 실천하며 2년 전 입적한 법정 스님이 새삼 다가선다.

## 無等鼓

우리 민족은 태동기부터 노래와 춤에 능했던 것 같다. 삼국지나 후한서 등은 가무(歌舞)를 즐겼던 삼한시대의 풍속을 전한다. 5000년 가무민족의 본성은 마야호로 '케이팝(K-POP)' 열풍을 일으키며 세계를 들쭉지게 하고 있다. 일 상에서 그 까가 가장 잘 투영된 공간은 음악반주기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든 노래방은 일본의 '가라오케'에서 유래했다. 1991년 부산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됐다. 중국과 대만(KTV), 필리핀(Videoke) 등에서도 우리나라만큼 성업 중인

내에는 5만개가 넘는 노래방이 있다. 비록 일부는 불법 퇴폐영업으로 철폐를 맞기도 하지만 가족과 친구, 동료끼리 저렴한 비용으로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국민 오락공간임에는 틀림없다.

지난 5월 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9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2009년 1월 9명이 숨진 부산 영도 지하노래방 화재 이후 소방방이 개장됐지만 스포링클러 등 설비가 갖춰지지 않는데다 불법 구조변경, 비상구 미확보 등으로 피해가 컸다.

노래방은 이렇다할 놀이공간이나 쉼터가 없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2012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업소 이용률은 노래방(84.2%)이 가장 높고, PC방(83.8%), 전자오락실(47.4%) 순이었다. 이 들 상당수는 지하에 위치해 위험성이 크다. 보다 세밀한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정홍시 정치부장 who@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 /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 A X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다자간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